

약력

오 점 숙 (필명: 오 문 연)

산동 초등학교 52회 졸업  
전북 남원시 산동면 이곡리 출생.

시인

한국 문인협회 회원, 하서 문학회 회원  
문학시대 신인상 당선.

e\_mail: [ojis0398@naver.com](mailto:ojis0398@naver.com)

전화: 010-4188-0398.

사건이 필요하시면 모비드리깃습니다.

낙지

오 문 연

혼절한 그림자의 박제실  
숨 막히는 적막 같은  
표백제로 닦은 핏기 없는 얼굴  
잊을 수 없는 몽환처럼  
잠옷 차림의 여인

탁탁탁 탁탁탁  
손가락 툭툭 잘라  
마른 도마에 꿈틀거리는  
굼벵이 무더기

썩둑썩둑  
신들린 날 선 칼날에  
툼벵툼벵  
한 방울 피 흘림 없이 잘려

꿈틀꿈틀  
소리없는 아우성으로  
끝까지 뒤틀리며 울부짖는  
찢뜩한 도마 위의 피날레.

## 순리

오 문 연

눈이 옵니다  
가을이 거스를 수 없게  
단호하게 못을 박는  
조용하게 질서대로 눈이 옵니다

찬란한 훈장과 작위 다 내려놓고  
제복마저 벗어버린 빈 몸으로  
하늘 향해 두 손 뻗어 항복하는  
꽃꽂한 나무의 저 온순한 순응

결코 절규하거나 거역함 없이  
운명 앞에 무릎 꿇고  
순리에 경의를 표하는  
저 의연한 자연의 섭리.

첨밀(첨) (첨) (첨) ← 한자를 꼭 넣어주세요.

## 오 문 연

어젯밤엔 즐거웠나 보다  
화알짝 상기된 얼굴로  
부끄럽게 웃는 것이

열에닐곱 어린 아내  
스물두어 셋 건장한 남편  
이른 아침 딸기밭에  
품 팔러 온 태국인 부부

세상에 아는 이 한 사람뿐이면  
얼마나 친밀할까

한 사람만 내 말 알아 들으면  
얼마나 내밀할까

너 말고 아무도 들을 수 없다면  
얼마나 은밀할까

낮선 이국땅에 한 사람만 기대에 산다면  
얼마나 첨밀할까

아, 나도 누가와 눈 맞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먼 이국으로 떠나고 싶어라.

## 먼 기억

### 오 문 연

보리밭 푸른 밭고랑 숨어들어  
보리밥 도시락 두근두근 먹어치우고  
오싹한 아장 산 돌무덤이 깨어나는  
한낮 신작로 구불 돌아 집에 오면  
아버지는 고욤나무 가지에 걸터앉아  
풀피리를 불고 계셨다

고욤나무 아래  
장독대에 앉아 햇별을 쥘던  
봉숭아도 채송화도 족두리 꽃도  
슬그머니 귀를 세워 엿듣고 있고

반쪽 가지만 꽃피우던  
늪은 배나무 옆 우물  
우물 속 깊숙이 들여다보면  
마을이 보인다

이영을 새로 엮은 노란 초가지붕엔  
빨간 고추가 햇빛을 받아먹고  
손님을 맞으려는지  
황토마당이 말갈게 쓸려 있다

마을 그 속에 들어가 보고 싶어  
나는 자꾸만 기웃거렸다  
긴 줄 두레박이 떨어질 듯 흔들리고  
되돌아설 때마다 아쉬운 달 울음이  
불게 화를 친다.

## 군중은 제물을 원한다

오 문 연

죽은 자는 신이 되었다  
허물은 칭송이 되었고  
충혈된 눈을 히번덕이며  
군중이 제물을 바친다

성직자들이 부추기고  
지식인들이 집도한 마취가 끝나자  
신 내린 군중의 칼춤을 시작으로  
집행을 끝낸 권력자는  
군중을 피해 황급히 사라진다

신을 향한 어떤 말도 금기어가 되어  
무죄를 호소하는 몸부림이 처절할수록  
너는 마리아가 아니다  
돌팔매질은 거세지고  
그를 낳은 야훼의 통곡은 함성에 묻힌다

그들은 신에게 자비를 구하지 않는다  
제 자식이라도 기꺼이 바치길 갈망한다  
군중의 광기를 확인한 지식인들은  
뒤돌아서서 히히덕거리며 옷매무새를 다듬고  
또 다른 제물을 주시한다

모든 걸 지켜보던 예수는  
부르르 떨며 급히 몸을 숨긴다.

어느 시장의 죽음을 지켜보며

## 세월

오 문 연

진달래 꽃진 자리  
봄은 단풍 들었네

떠 내밀지 않아도  
봄은 가고  
기다리지 않아도  
가을 오네

뉘라서 끈 묶어  
당길 수 있으리.

## 가을

오 문 연

어느 하늘 지나온 바람이기에  
저 풀잎 흐느껴 눕는가

그리움 질식할  
끝 모를 푸른 하늘

시름시름 꽃잎  
사위어 지네.



## 가을 저녁

오 문 연

부르는 듯하여  
마당에 나가보니  
흙짓 놀란 바람  
저만치 달아나네

바람 끼친 가지마다  
잎 떨어 쌓이고  
서산 길게 누운 산등선 위로  
식솔 울 안고 까마귀 넘네.

## 고추밭 소묘

오 문 연

수확 끝나 산발한  
고추밭 고랑 들았으니  
아늑하고 포근한 안식이다

겹겹 줄 이은 고랑 속에서  
외간 남자와 이상한 짓을 하던  
설움에 북받쳐 소리 질러 울던  
아무도 모를 만큼 비밀스럽다

검붉게 취한 노을에 젖은  
고랑만큼 속 좁은 하늘 올려보며  
눈물 찔금 안주로  
소주 한 잔의 가을을 삭인다.

## 울컹

오 문 연

18세면 정든 고아원을 떠나  
홀로 살아야 한다는  
공익광고를 들으며

스물도 안 된 아이가  
낮설고 험한 세상  
어찌 살아갈까 울컹한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대중가요  
‘그리움만 쌓이네’가  
흘러나올 때에도

절교한 옛 친구  
이룰 수 없던 옛사랑이  
보고 싶어 울컹한다

학교로 돌아가는 딸을  
버스터미널에 배웅하는데  
어서 들어가라는 잦은 손짓에

방학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는  
나에게 하염없이 손을 흔들어 주시던  
어린 날의 내 엄마가 지금의 나 같다

뭇 풀잎 바람에 스러지는 가을이어서 일까  
가을처럼 나도 늙어가는 때문일까.